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 번호 - 제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편지를 쓴 중세 서양 사상가가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님께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자유 의지'에 대한 저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신은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고, 피조물인 인간에게 자유 의지를 선물하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유 의지를 통해 선을 행하기는커녕 오히려 선으로부터 등을 돌립니다. 여전히 많은 인간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고, 신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신께서 자유 의지를 주신 의미를 깊이 새기면서, 신의 은총 속에서 참된 행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 ① 자신의 자유 의지를 남용하지 않고 선을 실천해야 한다.
- ② 자신의 능력과 의지만으로 최고 행복에 도달해야 한다.
- ③ 각자가 중시하는 자신의 가치를 최고선으로 추구해야 한다.
- ④ 지식이 덕과 동일함을 깨닫고 지식의 획득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⑤ 자신이 자율적으로 입법한 보편적 도덕 법칙만을 실천해야 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네 가지 거룩한 진리가 있다. 인생이 괴로움이라는 사실[苦], 괴로움이 생기는 원인[集], 괴로움이 소멸된 경지[滅], 괴로움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道]을 말한다. 이 진리를 아직 밝게 깨닫지 못하였다면, 더욱더 정진하고 참고 견디어 바른 생각과 바른 앎으로 깨달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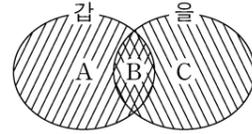
- ① 욕망을 충족시켜 무명(無明)에 이르러야 괴로움이 소멸된다.
- ② 모든 존재와 현상은 끊임없이 변하므로 고정된 실체가 없다.
- ③ 괴로움의 발생뿐만 아니라 괴로움의 소멸에도 원인이 있다.
- ④ 인간의 의도적 행위[業]로 인하여 태어남과 죽음이 반복된다.
- ⑤ 팔정도(八正道)는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방법이다.

3. 다음을 주장한 한국 사상가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람의 성(性)은 선을 즐거워하고, 악을 부끄러워하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선배 유학자가 말한 것처럼 ㉠이/가 본심의 완전한 덕이라 하면, 사람의 일은 마음만 들여다보아 그저 이 마음을 비우고 밝게 만들려고만 할 뿐이다. 그러나 ㉠은/는 실행을 통해 이룰 수 있는 것이니 누구나 그것을 완성하려고 정진하지 않을 수 없다.

- ① 인간과 동물이 모두 지니고 있는 생리적 욕구의 경향성이다.
- ② 인간의 본성에 깃든 것이 아니라 노력[功]으로 이루는 것이다.
- ③ 인간의 마음으로서 덕으로 나아가는 시작점[始]이 되는 것이다.
- ④ 선하거나 악한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능[自主之權]이다.
- 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이치[天理]가 아닌 마음의 기호[嗜好]이다.

4. (가)의 근대 서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C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가)	<p>갑: 인간의 지성을 사로잡고 있는 우상(偶像)과 그릇된 관념들은 정신을 혼미하게 하고, 진리도 얻을 수 없게 만든다. 그러므로 이러한 우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지 않으면 학문을 혁신하려고 해도 근경에 빠지고 말 것이다.</p> <p>을: 누구라도 이성을 완전히 사용하기 전에는 많은 선입견으로 인해 진리 인식에서 멀어져 있다. 이러한 선입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불확실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사물의 본성을 단 한번이라도 의심해 보는 것이다.</p>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10px;"> <p><범례></p> <p>A: 갑만의 입장</p> <p>B: 갑, 을의 공통 입장</p> <p>C: 을만의 입장</p> </div>

<보기>

ㄱ. A: 연역적 방법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획득해야 한다.
 ㄴ. B: 진리를 얻는 과정에서 이성이 수행하는 역할이 있다.
 ㄷ. B: 경험은 지식의 유일한 근원이므로 실험을 중시해야 한다.
 ㄹ. C: 방법적 회의를 거쳐야만 철학의 제1원리가 도출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5. 고대 동양 사상이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지인(至人)은 기(氣)의 변화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거리낌이 없다. 그의 마음 씀은 거울과 같아서 보내지도 않고 맞이하지도 않는다. 응대하되 마음에 두지 않는다. 그리하여 사물과의 대립을 이겨내고 상처받지 않는다.

을: 성인(聖人)은 백성들로 하여금 교활한 지식과 말재간을 버리도록 하여 그들의 이로움을 크게 늘린다. 또한 인의(仁義)를 버리도록 하여 효도와 자애를 회복하도록 한다. 그리고 교묘한 재능을 버리도록 하여 세상에서 도적이 사라지게 한다.

- ① 갑: 마음을 깨끗이 비워 절대 자유를 누려야 한다.
- ② 갑: 절대적 기준에 따라 선악미추를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 ③ 을: 도는 감각으로 경험할 수 없지만 언어로 규정할 수는 있다.
- ④ 을: 백성을 다스리는 제도와 규범이 생겨나 도와 덕이 이루어졌다.
- ⑤ 갑, 을: 성인은 예법(禮法)을 제정하여 무위로 다스려야 한다.

2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6.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옛날에 아버지의 장례를 모시지 않고 시신을 골짜기에 놓아둔 사람이 있었다. 그가 나중에 그곳을 지나는데 들짐승들이 시신 주변에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이마에 진땀을 흘리며 차마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다. 이마에 진땀이 났던 것은 다른 사람의 비난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부끄러운 속마음 [羞惡之心]이 얼굴에 드러났기 때문이다.

<보기>

ㄱ. 도덕적 기운은 마땅하고 떳떳한 행동으로 길러진다.
 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의(義)의 실마리이다.
 ㄷ. 인의의 본성을 제외하면 사람은 짐승과 거의 차이가 없다.
 ㄹ. 마음을 보존하고 본성을 변화시켜야 성인(聖人)이 될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7. 근대 한국 사상가 갑, 을, 병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서양인은 도무지 한울님을 위한 단서가 없고 자기 몸만을 위하여 기도할 따름이다. 그들의 도(道)는 허무에 가깝고 학(學)은 한울님을 위한 것이 아니니, 어찌 우리와 다름이 없겠는가.
 을: 서양의 설(說)은 비록 천만 가지 단서가 있더라도, 임금을 임금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근본으로 하고 재물을 교역하고 남녀가 교제하는 것을 방도로 하니, 짐승의 길이로다.
 병: 서양인은 형이하(形而下)에 밝아 그 기(器)가 천하에 대적할 자가 없고, 동양인은 형이상(形而上)에 밝아 그 도가 천하에 우뚝하니, 이 둘은 병행하여 서로 어긋남이 없도다.

- ① 갑: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토대로 내세에서 후천 개벽을 이뤄야 한다.
 ② 을: 성리학적 질서의 한계를 극복하여 만민 평등을 실현해야 한다.
 ③ 병: 유교적 가치에서 벗어나 이용후생(利用厚生)을 추구해야 한다.
 ④ 갑, 을: 외세의 침략에 맞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백성을 평안케 해야 한다.
 ⑤ 을, 병: 전통적 정치체제를 혁파하고 서구식 정부를 수립해야 한다.

8.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들은 자연적인 권력을 사회에 위임하며, 사회는 일정한 사람의 수중에 입법권을 위임한다. 사람들은 입법자가 제정한 법에 의해 지배를 받겠다고 신약을 하는 것이다.
 을: 사람들은 의회의 대의원을 선출할 때만 주인이고 일단 선출이 끝나면 그들은 다시 노예가 된다. 일반 의지는 대표될 수 없으며, 국민이 직접 인정하지 않는 법은 무효이다.

- ① 갑: 입법권은 최고의 권력이므로 자연법에 부합하지 않아도 된다.
 ② 갑: 법률을 제정하는 사람이 법률을 집행하는 권력을 소유해야 한다.
 ③ 을: 주권을 가진 사람이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을 가져야 한다.
 ④ 을: 통치자는 일반 의지의 대행자이므로 법의 지배로부터 자유롭다.
 ⑤ 갑, 을: 국민은 자신이 선택한 대표자를 통해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9. 다음을 주장한 근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높은 차원의 쾌락과 저급한 쾌락, 이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 이라면, 보다 높은 능력이 동원되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할 것이다. 지성을 갖춘 사람이 바보가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고, 교양 있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며, 양심이 있는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기>

ㄱ. 행위 자체의 도덕성이 행위의 결과적 유용성보다 중요하다.
 ㄴ. 도덕 원리는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성에 근거해야 한다.
 ㄷ. 질 높은 고상한 쾌락이 질 낮은 저급한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다.
 ㄹ. 두 쾌락의 질적 차이는 경험을 통해 두 쾌락에 정통한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0.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인간 행위의 최종 목적인 행복은 여러 가지 좋은 것들로 구성됩니다. 여기서 '좋은'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좋은'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 말해질 수 있습니다. '덕이 좋다'라고 말할 때처럼 덕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적당량이 좋다'라고 말할 때처럼 양에 대해 말하기도 하고, '때가 좋다'라고 말할 때처럼 시점에 대해 말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듯 좋은이 어떤 공통적이고 단일한 보편자로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 ① 좋은 것들로부터 분리된 좋음 자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② 좋음과 나쁨에 대한 객관적 판단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③ 모든 좋음의 존재 근거가 되는 궁극적인 하나의 좋음이 있다.
 ④ 인간 행위가 목적으로 삼는 좋음들의 가치는 모두 동등하다.
 ⑤ 인간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최고의 좋음은 존재하지 않는다.

11. 한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갑: 이(理)와 기(氣)는 본래 서로 결합하여 형체가 되고 서로의 기능이 조화되어 작용하게 된다. 진실로 이가 없는 기가 없고, 기가 없는 이가 없다. 그러나 나아가 말한 바가 다르니 분별하지 않을 수 없다.
 을: 이의 근원은 하나일 뿐이고, 기의 근원도 하나일 뿐이다. 기가 유행하여 천차만별의 사물이 되고, 이 또한 유행하여 천차만별의 원리가 된다. 그러나 기는 이를 떠나지 않고, 이는 기를 떠나지 않는다.

- ① 갑은 사단을 도덕 감정으로, 칠정을 일반 감정으로 본다.
- ② 갑은 사단은 이가, 칠정은 기가 주도하여 발현된 것이라고 본다.
- ③ 을은 본래부터 사단은 선, 칠정은 악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 ④ 을은 사단은 칠정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고 본다.
- ⑤ 갑, 을은 모두 칠정은 기가 발하고 이가 기에 타는 것이라고 본다.

12. 현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갑: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기쁨이나 걱정에서 마음을 빼앗겨 헛된 나날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체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 절망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결단에 결코 도달할 수 없다.
 을: 죽음을 향해 자각적으로 미리 달려가 봄으로써 현존재는 극적으로 고독해지며, 그 과정에서 세속적 가치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벗어나 나 자신의 충만하고 고귀한 존재, 즉 진정한 '자기'에 직면하게 된다. 죽음에 대한 직시는 나 자신을 본래적인 실존으로 도약시킨다.

- ① 갑: 신이 곧 자연임을 자각할 때, 참된 실존에 이르게 된다.
- ② 갑: 인간은 윤리적 실존 단계에 이르더라도 결국 절망에 빠진다.
- ③ 을: 현존재의 본질 회복을 위해 죽음에 대한 불안을 회피해야 한다.
- ④ 을: 일상적이고 공통적인 삶의 방식을 통해 본래적 실존이 회복된다.
- ⑤ 갑, 을: 인간은 실존적 상황 속에서 객관적인 진리를 추구해야 한다.

13. 그림은 사회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자유의 핵심은 개인의 선택이나 활동에 대한 간섭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우리에게서는 아무도 마음대로 간섭할 수 없는 자신만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자유의 핵심은 자의적인 지배 권력이 부재한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 선한 주인에 의해 간섭받지 않는 노예라 할지라도 그는 진정으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갑



을

- ① 갑: 불간섭의 영역이 확대될수록 개인의 자유의 영역은 축소된다.
- ② 갑: '~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를 향한 자유'가 진정한 자유이다.
- ③ 을: 법은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개인의 자유를 보호한다.
- ④ 을: 자의적 지배가 없는 정당한 간섭보다 어떤 간섭도 없는 지배가 낫다.
- ⑤ 갑, 을: 모든 간섭이 사라져야 진정한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14.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물에 응대하려면 먼저 궁리(窮理)해야 하지만, 궁리하려면 본래 텅 비고 고요하며 밝고 맑은 마음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미세함까지 살필 수 있으며 번잡하고 혼란한 것을 분석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수 있다.
 을: 이치(理)는 오직 이 마음에서 찾을 뿐이다. 이 마음은 인욕이 없는 깨끗한 천리여서 부모에게 효도하려는 정성스러운 것이니, 겨울에는 자연히 부모의 추위를 생각하여 따뜻하게 해 드릴 방법을 찾지 않을 수 없다.

—<보 기>—

ㄱ. 갑: 심(心)은 성(性)이 발현된 정(情)을 포괄하지 못한다.
 ㄴ. 갑: 도덕적 실천(行)이 선행되어야 도덕적 앎(知)이 가능하다.
 ㄷ. 을: 마음이 드러난 뜻(意)을 바로잡는 것이 격물(格物)이다.
 ㄹ. 갑, 을: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5. 고대 동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군자는 의로움을 최상으로 여기고, 학문으로 벼를 모으며, 벼를 통해서 인(仁)의 덕을 행한다. 그는 먹는 데 배부름을 추구하지 않고, 거처하는 데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으며, 일하는 데 민첩하고, 말하는 데 신중하다.
 을: 군자로서 의로움을 행하려는 사람이라면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늘의 뜻을 따른다면 모두를 아울러 사랑할 것(兼愛)이고, 하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면 자신과 가까운 사람만 사랑할 것이다.

—<보 기>—

ㄱ. 갑: 인과 예를 회복하여 소국과민(小國寡民)을 실현해야 한다.
 ㄴ. 갑: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백성이 편안하도록 다스려야 한다.
 ㄷ. 을: 다른 나라를 정복하기 위한 침략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
 ㄹ. 갑, 을: 존비친소(尊卑親疏)의 구별 없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윤리와 사상)

사회탐구 영역

16. 갑은 근대 서양 사상가, 을은 고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은 긍정, 을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갑: 사람이 어떤 상실의 슬픔에 빠졌을 때, 그 상실이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음을 깨닫는 순간 슬픔은 감소된다.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다.
 을: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일어나기를 요구하지 말고,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대로 일어나기를 바라라. 그러면 너의 삶은 강물처럼 순조롭게 흐르리라.

- ① 자연 세계 안에는 초월적 신이 내재되어 있는가?
- ② 자연법칙에 관한 앎은 정념 극복에 기여하는가?
- ③ 인간은 인과적으로 연결된 세계 속에서도 자유 의지를 갖는가?
- ④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신적 필연성에 의해 작용하는가?
- ⑤ 지복은 신에 대한 직관적 앎에서 나오는 정신의 지적 만족인가?

17. 근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갑: 악덕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되는 대상을 고찰하는 동안에는 결코 악덕을 발견하지 못한다. 고찰의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전환하고, 부인(否認)의 감정을 발견한 후에야 악덕을 발견하게 된다.
 을: 도덕 법칙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 행위의 합법칙성에 대해 내리는 판단을 분석하면 다음을 알 수 있다. 실천 이성은 경향성의 속박에 매수되지 않고 자기 자신에 의해 강제되면서, 행위할 때마다 의지의 준칙을 순수한 의지에 묶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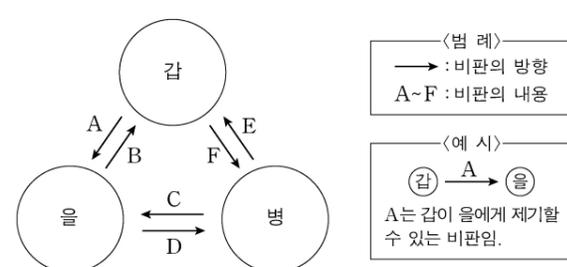
- ① 갑: 공감은 자연적 성향이므로 도덕성의 기초가 될 수 없다.
- ② 갑: 덕과 악덕은 인간의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재이다.
- ③ 을: 행복을 추구하라는 의무에 일치하는 도덕적 행위만이 정당하다.
- ④ 을: 실천 이성을 따를 때 인간은 자신을 도덕 법칙의 예외로 삼지 않는다.
- ⑤ 갑, 을: 도덕적 판단에 있어 이성과 감정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

18.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 을은 근대 서양 사상가이다. 갑이 을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쾌락은 축복받은 삶의 시작점이자 목적이다. 고통의 완전한 결핍은 최고의 쾌락이며, 쾌락의 한계이다. 최고의 쾌락은 평정심으로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해방된 상태이다.
 을: 쾌락과 고통이라는 두 군주는 행동과 말과 생각의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배한다. 쾌락과 고통은 강도, 지속성, 확실성, 근접성 등의 기준에 따라 측정할 수 있다.

- ① 개인적 쾌락의 총합이 사회 전체의 쾌락임을 모르고 있다.
- ② 인간은 고통을 싫어하고 쾌락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 ③ 쾌락을 순수성의 정도에 따라 측정할 수 있음을 모르고 있다.
- ④ 쾌락은 행위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목적도 된다는 것을 간과한다.
- ⑤ 쾌락의 양을 늘려 나가는 것이 인간 행위의 목적이 아님을 모르고 있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가)	갑: 시장에서 개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자연적으로 사회에도 이득이 된다. 을: 시장에서 유효 수요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자연적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인 낙관일 뿐이다. 병: 시장에서의 경쟁 대신에 계획을 표방하는 사회주의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형태의 노예제일 뿐이다.
(나)	

- ① A: 시장에서 개인의 경제 활동의 자유를 인정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D: 완전 고용 실현을 위한 정부의 투자 정책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③ C: 생산 수단에 대한 사적인 소유를 허용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④ E: 시장 실패의 해결을 위해 복지 정책을 확대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F: 정부 규모가 비대해지면 자원 분배의 효율성이 저하됨을 간과한다.

20.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유토피아는 누구나 모든 것을 평등하게 나누어 가지며 풍족하게 살아가므로 빈민이 없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덕 있는 사람이 보상을 받으면서 정신적 자유를 누린다.
 을: 질서 정연한 사회는 구성원의 선을 증진하면서도 공공의 정의관에 의해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에서는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 적용된다.

<보 기>

ㄱ. 갑: 재산의 사적 소유는 소수의 부자와 다수의 빈민을 발생시킨다.
 ㄴ. 갑: 이상 사회에서는 풍족한 재화와 높은 도덕성이 공존한다.
 ㄷ. 을: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정당화될 수 없다.
 ㄹ. 갑, 을: 재화는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